



윤석민

■ KIA 금주의 프로야구

탈꼴찌 '산 넘어 산'

"KIA 타이거즈,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KIA는 지난주 하위권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와의 6연전에서 단 2승을 거두는 데 그쳐 전금값은 '탈꼴찌' 기회를 날렸다. 이번 주 KIA는 4위 우리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 이어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 와이번스와의 원정경기를 갖는다.

21일 현재 5승 14패로 0.263의 승률에 머물고 있는 KIA는 전체 126경기 중 19경기를 치르면서 시즌 15%가량을 소화했다. 4위팀 우리와 4게임차, 1위 SK와는 무려 9게임이나 차이가 난다. 아무리 초반이라고 하지만 상위팀과의 게임차가 만만치 않고, 팀 전력누수도 심각한 상태라 4강 길이 아득하게 만 보인다.

최근 6연패의 부진에 빠졌었던 우리는 지난 20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브룸바와 송지만의 홈런에 힘입어 12-4로 이기면서 잠잠하던 타선이 상승세다. 게다가 KIA와의 시즌 첫 경기인 22일에는 2승 1패를 기록하며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현승이 마운드에 오르는 것도 부담스럽다. 중간계투로 활약해온 이현승은 올 시즌 선발로 나서 15와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

강팀 상대 승수쌓기 '가시밭길' 예상

오늘 윤석민 선발... '불방망이' 기대

자책점 1.72를 기록하고 있어 KIA타선이 얼마나 공략할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KIA도 에이스 윤석민을 내세우는 만큼 우리와의 첫 경기에서 패한다면 충격이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KIA는 리마-윤석민-서재용-전병두(이대진)로 이어지는 튼튼한 선발진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로테이션마저 불투명하다. 퇴출설이 나왔던 용병 리마가 끝내 2군으로 내려갔고, 시즌 첫 등판에서 6이닝 노히트노런을 기록했던 전병두는 이후 2경기에서 채 5이닝도 못 채우고 강판당하며 부진하다. 5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5이닝동안 1.8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이래

▲22~24일 : 우리전-광주

▲25~27일 : S K전-인천

◇프로야구 중간순위 (21일 현재)

Table with 8 columns: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Lists teams SK, 롯데, 삼성, 우리, 한화, LG, 두산, KIA with their respective stats.

진도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지 못하고 2군에 있으며 18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선발 테스트를 받은 정민태도 3과 3분의 2이닝동안 6실점, 선발진에 합류하기에는 불안한 모습이 다. 마운드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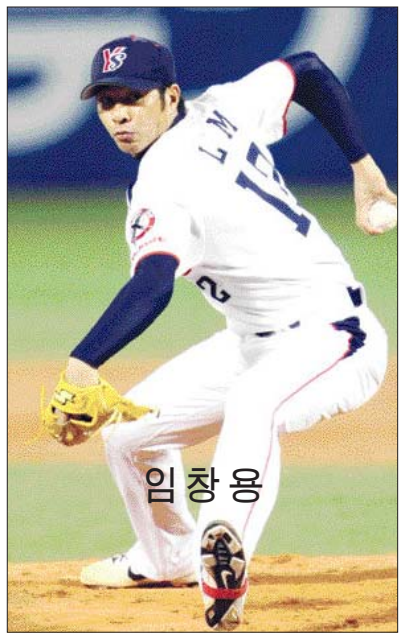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는 윤석민과 서재용에 불과해 당분간 주먹구구식 마운드 운영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우리와의 경기 이후에는 투-타가 매서운 SK가 기다리고 있어 참담산중이다.

한편 21일 현재 4위팀 우리와 7위 두산과의 경기 차가 1게임에 불과할 만큼 중위권 다툼이 팬들에게 재미를 더하고 있다. 한화와 LG는 0.5게임차로 우리를 쫓고 있고, 두산은 다시 0.5게임차로 한화와 LG를 쫓고 있다. 최하위 KIA는 7위 두산과도 3게임차가 나면서 중위권 싸움에서도 배제됐다.

이번 주 KIA는 필사적으로 선두권과의 격차를 줄여야만 4강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이제는 나중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매게임 혼신을 다하는 수 밖에 별다른 수가 없다. 심기일전한 KIA의 잇따른 승전보안이 가을잔치를 예고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병규



임창용

우리는 '특급 주전'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타격 부진으로 2군에서 고행 중인 사이 임창용(32·야쿠르트 스왈로스)과 이병규(34·주니치 드래곤스)는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에서 소속팀 투타의 기동으로 확실하게 입지를 굳히고 있다.

3년간 최대 500만달러에 야쿠르트 유니폼을 입고 일본에 진출한 임창용은 데뷔 첫해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스프링캠프에서 1군 진입에 성공했고 곧바로 팀 내 마무리를 겸한 그는 21일 현재 7경기에서 4세이브를 올리며 팀 승리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7이닝 동안 안타 4개를 내줬을 뿐 탈삼진 4개를 결하며 무실점 행진 중이다. 팀이 올린 9승(9패) 중 4승이 임창용의 손에서 끝났다.

사이드암으로는 최고 시속 150km를 훌쩍 넘기는 빠른 볼로 임창용은 까다로운 일본 타자들을 넘고 있다.

예초 좌우타자 바깥쪽 또는 몸쪽으로 떨어지는 심커가 없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급격한 곡선을 그리는 '뱀직구'로 승승장구 중이다.

그는 오버핸드, 사이드암, 스리쿼터 등 세 가지 형태로 볼을 뿌려 구종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있다. 3월29일 요미우리를 상대로 첫 세이브를 올렸고 요코하마전 2개, 한신전 1개 등을 거뒀다. 센트럴리그 세이브 순위에서는 후지카

와 구지(한신·10개), 이와세 히토키(주니치·6세이브), 마크 크론(요미우리·5개)에 이어 4위다.

작년 일본시리즈 우승팀 주니치의 주전 우익수로 활약 중인 이병규는 모리노 마사히코, 나카무라 노리히로 등 맹쟁한 타자들을 물리치고 3번 타자로 나서고 있다. 시즌 초 6~7번을 때리리란 예상은 빗나갔다. 타율은 0.260(77타수20안타)으로 부침을 거듭 중이나 찬스해결

능력이 좋아져 3번으로 중용된다.

이병규의 득점권 타율은 0.375(16타수6안타), 8타점으로 자신의 타율은 물론 2할대인 4번 타이론 우즈, 3할대 초반인 모리노, 와다가즈히로보다 높다.

아라키 마사히로, 이바타 히로카즈 등 리그 최강 1,2번 타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병규는 찬스에서 적시타로 이를 값있게 해내고 있다. 팀 내 타점은 와다(14개), 모리노(13개)에 이어 11개로 세 번째.

일본 진출 2년차를 맞아 부단한 연구를 통해 일본 투수들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고 오치아이 히로미쓰 감독의 조언에 따라 왼쪽 다리에 끝까지 힘을 남긴 채 타격하면서 변화구 대처 능력도 좋아졌다는 평가.

임창용과 이병규는 상승세를 발판 삼아 현재 베이징올림픽 본선에 나설 대표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병규

득점권 타율 0.375, 8타점

당초 예상 깨고 '3번' 궤차

■ 임창용

빠른 '뱀직구'로 승승장구

7경기서 4S '마운드 주역'



삼성 2패 뒤 1승

21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7-2008 SK텔레콤 T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차전 서울 삼성대원 동부의 경기에서 서울의 토마스와 원주의 오코사가 점프볼을 하고 있다. 삼성이 88-87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中 빠진 브라질 오픈 탁구

한국 남녀 복식 우승

한국 탁구가 중국 선수들이 불참한 2008 브라질오픈에서 남녀 복식 동반 우승에 성공했다.

여자 대표팀 '수비수 콤비' 김경아(대한항공)-박미영(삼성생명) 조는 21일(한국시간) 브라질 벨부리에서 열린 복식 결승에서 싱가포르의 리자웨이-순베이베이 조를 4-2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2005년 복식 2관왕이자 지난해 스웨덴오픈 챔피언인 김-박 조는 지난 달 카타르오픈 결승에서 중국의 장이닝-궈웨이 조에 1-4로 져 준우승했지만 올해 국제탁구연맹(ITTF) 오픈대회 첫 우승 기쁨을 누렸다.

김-박 조는 첫 세트를 따낸 뒤 스 점진을 펼친 2, 3세트를 잃어 위기에 몰렸지만 끈질긴 수비로 상대를 괴롭히고 빠른 공격 전환으로 허를 찔러 4, 5, 6세트를 여유있는 점수 차로 이겼다.

또 처음 호흡을 맞춘 김정훈(KT&G)과 윤재영(상무)도 남자복식 결승에서 대만의 첸치위안-우치치 조에 짜릿한 4-3 역전승을 거두고 오픈대회 첫 우승컵을 안았다.

김정훈은 그러나 단식 결승에서는 홍콩의 장티아니에게 3-4로 탈미를 잡혀 2관왕에 아깝게 실패해 준우승을 한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 아쉬운 2위

PGA 버라이즌 헤리티지

앤서니 김(22·나이지콜프)이 PGA 투어 첫 우승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앤서니 김은 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헤드의 하버타운 골프장에서 열린 버라이즌 헤리티지 최종 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12언더파 272타로 아론 배틀리(호주)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3라운드 선두였던 부 위틀리(미국)도 버디 5개를 보기 5개로 맞바꾸며 이븐파 71타에 그쳤지만 벌여놓은 타수 덕에 함께 15언더파 269타를 쳐 이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3타차 2위로 챔피언조에 편성된 앤서니 김은 2번홀(파5) 보기를 6번홀(파4) 버디로 만회하며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9번홀(파4)에서 2타를 잃어 버린 것이 치명적이었다.

앤서니 김은 13번홀(파4)부터 15번홀(파5)까지 3연속 버디를 잡으며 상승세를 탔지만 16번홀(파4)에서 퍼퍼트가 홀 옆에 멈춰서면서 더 이상 추격할 힘을 얻지 못했다. 올 시즌 최고 성적을 냈는데 만족해야 했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펠러 회원권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 비공식회원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어 오아레스티아 등으로 확장사업 하였습니다.
성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처소가 되었습니다.
정회원 (062)351-0095



오초아 독주...4연승

LPGA 긴오픈 우승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사진)가 LPGA 투어 1인체제를 굳히고 있다.

오초아는 21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 긴 리유니언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긴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2위 청야니(대만)를 3타차로 따돌린 우승을 거둔 오초아는 39만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아 상금왕 3연패도 예약하다시피 했다. 올해 여섯차례 대회에 출전해 다섯 개 우승컵을 차지해 83%의 경이적인 승률을 과시한 오초아는 투어에서 다른 선수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이성을 구축했다.

6개 대회를 치른 결과 상금은 61만달러를 벌어들인 2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두배가 넘는 144만달러로 1위를 달렸고 드라이샷 평균 비거리 1위(277.5야드), 그린 적중률 1위(81%), 버디 1위(124개), 언더파 라운드 1위(23라운드 가운데 22라운드), 평균 타수 1위(67.8696타), 그리고 '톱10' 진입률 1위(100%) 등 전 부문에서 선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4주 연속 우승은 45년 만에 나온 진기록이기도 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